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400명 추가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3326명이 신청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후 사업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주영 농업정책국장이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추가 선발되는 400명의 시·도별 인원은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충북 21명, 제주 17명으로 배정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소·중견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선정·개선

산업부,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11개 규제·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이날 11개 성장디딤돌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정부가반도체·디스플레이신시장창출을 위해 수요기업과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자동차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자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수요기업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유망 분야(자동차, 바이오, 가전, 에너지, 기계) 수요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를 포함한 협의체를 말한다. 얼라이언스는 앞으로 구성원을 상시 모집하는 개방 연합체(Open Alliance) 형태로 운영되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킹 플랫폼 시리즈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활동을 향후 추진될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책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KS인증 정보 한눈에... 'KS나라' 홈페이지 개설행

산업부, 불량·부실 인증심사

KS(한국산업규격)인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일부터 KS인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KS제품 및 부실 인증심사 기능을 제공하는 'KS나라(www.ksnara.or.kr)'를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KS나라는 KS인증제도·대상품목·심사 기준 및 절차·사후 관리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증업체정보검색·부실심사 신고·질의·답변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KS나라는 모바일에서도 가독성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첨부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한국산업규격 인증기관에서도 기업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온라인 KS인증업무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장학회·복지재단 등 전국 공공기관 600곳

비정규직 1만6천명 정규직 전환

노동부,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복지포인트 제공·처우 개선 등 연내 기간제·파견 전환결정 완료

6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재단, 장학회, 복지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 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이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이다.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786곳의 비정규직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이다.

2단계 대상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1만6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중 30인 미만 소규모인 곳이 절반(47.8%)에 달하고 재원의 모회사 의존도도 높다.

이들 기관에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다.

전환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돼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게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100만원), 복지 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

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모회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모회사와 합의를 통해 공동 전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이성이 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자 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사전심사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사, 예산, 정원 등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사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수북이 쌓인 선거공보물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강원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각 지역으로 배분될 선거공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SH, 구로구 항동지구 3단지 공공분양

분양주택·국민임대 등 총 1170세대 11일 특별·내달 2일 일반청약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SH공사)가 서남권 최대 주택개발지구인 구로구 항동지구의 공공분양을 시작한다.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6월 11일~12일에는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7월 2~3일에는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한다.

항동지구 3단지는 분양주택 732세대(전용면적 59㎡, 74㎡, 84㎡)와 국민임대 438세대(39㎡, 49㎡, 59㎡) 총 1170세대가 건설된다.

3단지는 유치원, 초·중학교 예정부지와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예정부지와 인접해있으며, 푸른수목원과 역곡천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녹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3km 이내에는 서울의곽순환도로 시흥IC가 있고, 항동지구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인 서해안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부광로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구로구 항동지구 3단지 조감도. /SH

2261만1000원이다.

항동지구 민간 분양가격이 전용 84㎡를 기준으로 평균 4억7000만원대였음을 감안하면 평균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청약신청 사이트(www.ap2you.com)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SH공사를 방문해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청약도 가능하다.

사이버 견본주택 확인방법과 분양 일정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일반분양 당첨자 및 등·호수 배정 발표는 7월 1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9월 4~6일이며,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iki@